



보도 일시	2023. 2. 15.(수) 12:00 (목요일 조간)	배포 일시	2023. 2. 14.(화)
담당 부서 <총괄>	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	책임자	과 장 박소영 (044-201-7220)
		담당자	사무관 유병훈 (044-201-7229)

세계 습지의 날 기념 민·관·학이 모여 습지정책 이행 논의

- 환경부, 2월 16일 습지 보전·관리 연찬회 문경에서 개최-

- 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2023년 ‘세계 습지의 날(2.2.)’을 기념하고, 습지 보전·관리 정책의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월 16일부터 이틀간 경북 문경시 STX리조트에서 민·관·학 합동 연찬회를 개최한다.
- ‘세계 습지의 날’은 1971년 2월 2일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람사르 협약이 체결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협약 상임위원회에서 1996년에 지정했으며, 2021년 8월에 유엔 지정 국제 기념일이 되었다.
- 올해 습지의 날 주제는 ‘바로 지금, 습지를 되살릴 시간(It’s time for Wetland restoration)’으로 우리의 선택과 실천이 습지 복원의 첫걸음임을 강조한다.
- 습지는 지구 표면적의 6%에 불과하지만 세계 생물종의 약 40%가 사는 생물다양성의 보고(寶庫)이며 식량안보, 재해예방, 기후조절에 이르기까지 인류에게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한다.
- 그러나 람사르협약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전 세계 습지의 35%가 사라졌고, 습지에 의존하는 생물종의 25%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.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기후위기까지 해결하기 위해 습지의 복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이다.

- 이번 연찬회에는 습지 분야의 전문가, 지역주민, 지자체, 민간단체 등 습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며, 습지의 보전·관리 정책방향을 논의한다.
 - 환경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‘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’을 소개하고, 민간단체, 지자체는 그간 지역사회에서의 습지 보전·관리, 현명한 이용 노력을 공유한다. 또한, 서울여대 이창석 교수의 국내 습지의 복원 사례 및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, 4명의 습지 전문가의 발제 및 참석자 전체 토론이 진행된다.
 - 아울러, 2월 17일에는 워크숍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문경돌리네 습지 보호지역 생태탐방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.
 - 문경돌리네 습지는 수량 유지가 어려운 석회암지대에 형성된 산지 습지로, 지형·지질학적 보전가치가 우수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2017년에 환경부가 23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*으로 지정한 곳이다.
- * 2023년 2월 기준 환경부 지정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은 총 30곳임
-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“이번 연찬회를 통해 민·관·학의 소통과 협업이 강화되고, 습지 보전·복원을 위한 실천이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라고 말했다.

- 붙임 1. 2023년 습지보전관리 민·관·학 합동 연찬회 계획.
2. 전문용어 설명. 끝.



□ **목 적**

- 세계습지의 날(2.2)*을 맞아 습지 보전·관리 정책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한 민·관·학 합동 논의·토론을 통해 습지 보전관리 방향 모색

* ('23년 주제) “바로 지금, 습지를 되살릴 시간(It's time for wetland restoration)”

□ **연찬회 개요**

- (일시/장소) '23.2.16.(목)~17.(금) / 문경시 STX리조트, 문경 돌리네습지
- (주최/주관) 환경부/국립생태원 습지센터
- (참석자) 환경부, 지자체, 지역주민, 전문가, 민간단체 등 100여 명
 - (환경부) 환경부, 유역(지방)환경청, 국립생태원(공공기관) 등 30명
 - (지자체) 경북도, 전북도, 강원도, 제주도, 부산시, 대전시, 광주시, 대구시, 김포시, 고양시, 충주시, 문경시, 창원시, 영양군, 창녕군, 강릉시, 순천시, 고창군, 경남람사르환경재단(공공기관) 등 23개 기관 46명
 - (민·학) (사)한국습지학회, 한국환경연구원,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, 네오스케이프연구소, 우포자연학교, 문경 YMCA, 제주생태관광협회 등 14개 기관 28명

□ **주요내용**

- (1일차) 주제발표 및 토론
 - ①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('23~'27) 소개(환경부)
 - ② 문경 돌리네습지 보전관리 현황(문경시)
 - ③ '22년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 결과 공유(국립생태원 습지센터)
 - ④ 국내 훼손습지 현황, 복원사례 및 방향(한국습지학회)
 - ⑤ 람사르습지도시의 현명한 이용(복원) 사례(고창군 생태관광협회)
 - ⑥ 국내 발의 결의문 추진사례 공유(경남람사르환경재단)
 - ⑦ 습지 보전관리정책 방향 종합토론
- (2일차)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 생태탐방

- (람사르협약, Ramsar Convention) 습지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 협약('71.2.2.)으로, 공식 명칭은 '물새 서식처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(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)
- 약칭 : 습지에 관한 협약(Convention of Wetland), 람사르협약(Ramsar Convention)
- 가입 : 협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는 최소 1개 이상의 자국 내 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한 후 협약사무국(스위스 클랑)에 가입 신청
- 현황 : '23.2월 현재, 172개국 2,471개 습지(256,192,356ha)
- 한국 : '97년 "대암산 용늪"을 최초로 람사르협약에 등록한 후 가입, '23.2월 현재 24개소(202.672km²) 람사르습지 등록
- 당사국 총회 : 3년마다 개최('08년 당사국 총회는 경남 창원에서 개최)
- (세계 습지의 날) 람사르협약이 최초로 서명된 1971년 2월 2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2월 2일을 세계 습지의 날로 정하여 당사국으로 하여금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권고
-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정부 공식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,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2011년부터는 2월에 연찬회, 정책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, 5월경에 습지 주간을 정해 기념식과 함께 습지 생태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같이 추진